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027 고2 문학 지학사 | 1(1)(2) 성난 풀잎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1(1) 단원은 시, 수필, 소설의 각기 다른 갈래를 통해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수필인 「성난 풀잎」은 ‘풀독’이라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따라서 수필의 특징,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와 잡풀을 바라보는 농부와 ‘나’의 관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농부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지니고 있고, 글쓴이인 ‘나’는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에 대한 글쓴이의 새로운 인식을 묻는 문제, ‘성난 풀잎’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때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굽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흥을 보기도 했다. ㉤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 「성난 풀잎」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심화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성찰과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④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이 특정 생물에게 편애나 차별을 두지 않는 무심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자연이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③ ㉢: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기적인 태도임을 지적한다.
- ④ ㉣: 글쓴이가 도시 생활에 익숙하여 자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⑤ ㉤: 풀의 저항으로 생긴 풀독을 자연의 순리대로 받아들이라는 글쓴이의 태도를 보여 준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수필은 '잡풀'을 농사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글쓴이가 풀독이 올라 고생했던 상황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풀독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며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①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는 것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군.
- ②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라는 표현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③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는 잡풀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군.
- ④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라는 깨달음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글쓴이가 '풀독'이 오른 후 병원을 찾지 않고 자연스럽게 낫기를 기다린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군.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때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움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

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흥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게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 「성난 풀잎」

**4. 윗글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서양의 격언을 인용하여 글의 논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독백적인 어조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를 부각하고 있다.

**5.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 수 있었지요.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야 따리 끈 입에 물고 삼짝 들어서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이 미나리깡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지요.

- 「그 샘」

- ①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공동체적 삶에서의 바람직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 ②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의 상실감과 아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평범한 소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 ⑤ 감각적인 묘사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6~8]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 왔다. 얻어 온 것도 두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 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다 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설 만치 그늘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저속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그에 사 오고야 만 것이었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 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요, 생선 씻은 물, 깻묵 물 같은 것을 툼툼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봄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내었다.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열두 자도 훨씬 더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보는 것이다.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를 명상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중략)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니요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열린 쓸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담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쳇을 해 달지 않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쳇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덤킨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담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냐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 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찌리!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름에랴!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초니 오 원이라도 받고 팔아 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어서 가슈. 그리구 올가올엔 움이나 작년보다 더 깊숙하게 파 주슈.”

“참 딱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 「파초」

6.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은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 ② 윗글은 여러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보기>는 대상에 대한 애정과 대상과의 정서적 유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는 특정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는 모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7. ㉠과 ㉡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에는 대상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에는 대상과의 교감에서 오는 감격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자책이, ㉡에는 대상에 대한 실용적 가치 판단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미물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에는 대상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자연과의 합일에 대한 소망이, ㉡에는 대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다.

8. <자료>를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두 글은 모두 글쓴이가 체험한 내용과 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는 수필이다. 수필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쓴이의 경험에 따른 생각을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성 있고 창의적인 관점을 드러내거나 상대 관점에 대한 반대, 비판, 깨달음 등을 드러내게 된다.

- ① 윗글에서 ‘풀둑’은 글쓴이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군.
- ② 윗글에서 풀둑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태도 변화를 보여 주는군.
- ③ <보기>에서 ‘그’가 파초를 팔라고 권유하는 것은 글쓴이가 파초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확고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④ <보기>에서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한 것은, 실용성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관점을 드러내는군.
- ⑤ <보기>에서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초’라고 생각하면서도 팔지 않는 것은, ‘그’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타협적 태도를 보여 주는군.

**【9~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때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겍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움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

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흥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 「성난 풀잎」

**9. 윗글에서 글쓴이가 ‘자연스럽다’는 말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사례가 아닌 것은?**

- ①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노자의 말
- ②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서양 작가의 말
- ③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붕어가 피라미를 먹는 먹이 사슬
- ④ 늙은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아도 자연이 모르쇠를 대는 일
- ⑤ 농부가 필요에 따라 풀을 나물, 화초, 약초, 거름 등으로 대하는 일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장마가 지면 집이 나간 집처럼 보일까 봐 잡풀을 제거했다.
- ② 글쓴이는 잡풀도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게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글쓴이는 ‘자연스럽다’는 말이 인위적 조작이 개입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를 뜻한다고 본다.
- ④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로 변화했다.
- ⑤ ‘성난 풀잎’이라는 제목은 인간의 태도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담고 있다.

11. <보기>는 윗글과 엮어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윗글의 ‘글쓴이’(깨달음 후)와 <보기>의 ‘나’가 공통적으로 지닌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손[客]이 길을 가다 ‘개[犬]’의 죽음은 슬퍼하면서 밭에 밟힌 ‘이[蟲]’의 죽음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에 ‘나’는 손[客]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크든 작든 모두 동등하며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① 생명은 크기와 이로움에 따라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 ② 인간은 자연을 초월한 존재이므로 만물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 ③ 모든 생명은 근원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④ 자연의 섭리는 약육강식이므로 강한 생명만 보호해야 한다.
- 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는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12. 윗글의 글쓴이가 풀독을 겪은 후 깨닫게 된 ‘자연스럽다’의 진정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의지대로 자연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것
- ② 자연의 냉혹한 섭리에 순응하며 고통을 감수하는 것
- ③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인위적 조작이 개입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
- ④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자연의 섭리가 작동하는 것
- ⑤ 잡풀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작물과 경쟁하는 것

13. 윗글의 제목 ‘성난 풀잎’이 상징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희생되는 자연
- ② 자연의 냉혹한 먹이 사슬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생명력
- ③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태도에 대한 경고
- ④ 농부의 밭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작물의 서러움
- ⑤ 풀독을 일으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잡풀의 폭력성

14.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 글쓴이는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잡풀’을 농사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했었군.
- ② 학생 2: ‘성난 풀잎’이라는 제목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 같아.
- ③ 학생 3: 글쓴이가 ‘자연스럽다’는 말을 매몰스럽다고 한 것은, 자연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성대로 움직이기 때문이겠군.
- ④ 학생 4: 글쓴이는 풀독을 겪으면서도, 결국 잡풀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어.
- ⑤ 학생 5: 농부가 ‘잡풀’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의 쓸모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보여 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어.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이 글은 글쓰이가 잡풀을 뽑다가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깨달은 바를 전달하는 수필이다. 수필은 글쓰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문학 갈래이다.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주로 시(詩)의 특징이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 ④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논설문이나 설명문과 같은 글의 특징이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는 것은 주로 소설이나 희곡의 특징이다.

### 2. 정답 ④

㉞은 글쓰이가 풀을 뽑고 베는 행위에 대해 풀이 저항한 결과로 풀독이 올랐다고 인식하는 부분이다. 이는 자연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보다는, 미물인 풀조차도 생명체로서 자신을 해하는 것에 저항한다는 깨달음과 관련이 깊다.

- ① ㉞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설명하듯, 하늘과 땅이 특정 생물을 편들거나 버리지 않고 자연의 순리 그대로 맡긴다는 의미이므로, 자연의 무심한 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㉟은 늙은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도 자연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자연의 방관적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 ③ ㉡은 ‘자연스럽다’는 말을 인간의 입장에서 ‘매물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인간의 기준으로 자연을 판단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에서 글쓰이가 병원을 찾지 않은 것은, 풀의 저항으로 생긴 풀독을 인위적으로 치료하기보다 자

연의 순리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 3. 정답 ⑤

글쓰이가 풀독이 오른 후 병원을 찾지 않고 자연스럽게 낫기를 기다린 것은, 풀을 뽑았던 자신의 인간 중심적 행동을 반성하고 풀의 저항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려는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농부가 자신에게 필요 없는 풀을 모두 ‘잡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 ② 작물의 성장을 위해 잡풀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모습은, 자연의 생태에 개입하여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태도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③ 잡풀도 뽑힐 때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전까지 하찮게 여겼던 잡풀을 고유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다.
- ④ ‘자연스러움’이 인간의 뜻과 무관하다는 깨달음은,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대로 통제하려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자연의 본성과는 맞지 않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결과이다.

### 4. 정답 ②

이 글에서 ‘열흘’, ‘보름’, ‘근 달포’ 등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나오지만, 독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는 제시되지 않는다.

- ① 글의 서두에서 ‘천지불인’이나 서양 작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보편적인 철학적 사유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③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잡풀도 저항하는 생명체라는 깨달음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공감을 유도한다.
- ④ 글 전체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서술되므로, 독백적인 어조를 통해 내면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수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 ⑤ 인간에게 이로운 때는 ‘나물’, ‘약초’ 등으로 불리다가 필요 없을 때는 ‘잡풀’이 된다는 데서 대조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치를 매기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5. [정답] ④

윗글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풀’과 ‘풀독’이라는 평범한 경험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성찰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보기> 또한 마을의 ‘샘’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이웃 간의 배려와 나눔이라는 공동체의 미덕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두 글 모두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이끌어 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① <보기>는 공동체적 가치를 다루지만, 윗글은 공동체적 삶보다는 모든 생명이 지닌 동등한 가치와 자연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② 윗글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보기>는 과거를 따뜻하게 회상할 뿐 현재의 상실감을 부각하지는 않는다.
- ③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윗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보기>는 긍정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보기>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등 감각적인 묘사가 돋보이지만, 윗글은 사색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이 주를 이룬다.

6. [정답] ②

윗글은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독백적인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는 확인할 수 없다.

- ① 윗글에서 농부가 풀을 ‘잡풀’이라 부르는 것, 작물과 경쟁한다고 여겨 뽑아버리는 것 등을 통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 글쓴이는 파초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으며 파초와 정서적 교감을 느끼고 있다.
- ④ <보기>는 파초를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여 팔기를 권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파초를 심미적, 정신적 가치로 여기는 글쓴이와의 가치관 차이를 명확히 보여 준다.
- ⑤ 윗글은 풀독이 오른 경험을, <보기>는 파초를 기른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가치, 실용성을 넘어선 교감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이

끌어 내고 있다.

7. [정답] ②

㉠은 하찮게 여기던 잡풀도 뽑힐 때 느낌이 있고 저항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는 모든 생명은 동등하며 자연의 섭리대로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보여 준다. ㉡은 글쓴이가 정성껏 기른 파초가 마침내 꽃을 피운 것에 대한 벅찬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① ㉠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지 경외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은 파초의 죽음 자체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 개화(開花)의 의미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에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엿보이지만, 주된 정서는 깨달음이다. ㉡은 파초의 실용적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은 연민보다는 생명체로서의 존중에 가깝다. ㉡은 파초의 현재 절정의 순간에 대한 감격이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다.
- ⑤ ㉠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지만, 자연과의 합일을 소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은 단순한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을 넘어, 함께한 시간을 통한 깊은 교감의 결과물에 대한 감격을 나타낸다.

8. [정답] ⑤

<보기>에서 글쓴이가 파초를 팔지 않는 것은, 죽을 운명이라는 실용적 관점(그의 관점)을 이해는 하지만 결코 수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파초와의 정신적 교감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타협적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윗글에서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하찮게 여기던 잡풀도 생명체로서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반성하게 된다.
- ② 윗글에서 인위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풀독이 자연스럽게 낫도록 둔 것은, 풀의 저항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는 글쓴이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 준다.
- ③ <보기>에서 ‘그’는 파초를 오직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지만, 그의 권유는 오히려 글쓰이가 파초의 심미적, 정신적 가치를 더욱 확고히 인식하고 지키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

④ <보기>에서 비를 막아주는 ‘챙’의 실용성보다 파초 앞에 비 듣는 소리가 주는 정서적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글쓰이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9. **정답** ⑤

⑤는 ‘자연스러움’의 속성을 설명하는 사례가 아니라, ‘농부’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적 사고’의 사례이다.

①, ②, ③, ④ 나머지는 모두 인간의 의지나 이기심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자연의 본성, 즉 ‘자연스러움’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글쓰이가 제시한 사례들이다.

10. **정답** ④

글쓰이는 풀독이 오른 후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태주의적으로 사고하게 된 것’이다. 즉, 인식의 변화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① ‘장마가 지면 ~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며 잡풀의 반발을 인정하고 있다.

③ ‘자연스럽다’는 말은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⑤ 제목 ‘성난 풀잎’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들의 태도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담고 있다.

11. **정답** ③

윗글의 ‘글쓰이’는 ‘잡풀’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 <보기>의 ‘나’ 역시 ‘개’와 ‘이’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생명의 동등한 가치 인정’이다.

①, ⑤ 윗글의 ‘농부’나 <보기>의 ‘손[客]’이 가진 인간 중심적 관점이다.

② ‘인간 중심적 사고’에 해당하며, 윗글의 글쓰이와 <보기>의 ‘나’가 모두 비판하는 태도이다.

④ 윗글의 ‘글쓰이’는 약육강식(먹이 사슬)을 ‘자연스러움’의 예로 들었으나, 이를 옹호하거나 보호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12. **정답** ③

글쓰이는 풀독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다’는 말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를 이르는 말이며, 자연은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임을 깨닫게 되었다.

①, ④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이로움과 무관하다.

② 고통을 감수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다.

⑤ ‘농부’의 관점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자연스러움’의 본질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13. **정답** ③

‘성난 풀잎’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인간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①, ②, ④, ⑤ ‘성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희생이나 생명력, 서러움, 폭력성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반응’이자 ‘경고’로서의 의미이다.

14. **정답** ④

글쓰이는 풀독을 겪은 후, ‘잡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 반발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태주의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잡풀을 여전히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잡풀’을 농사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존재이기에 뽑고 베어 내야 한다고 인식했다.

② ‘성난 풀잎’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③ ‘자연스럽다’는 말이 매몰스럽다고 한 이유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⑤ 농부는 자신에게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라고

부르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보여 준다.

목단배포금지